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 대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9월 강한 일자리 보고서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
- Bloomberg: 8월 미 무역수지, 5개월 만에 가장 적어
- Bloomberg: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와 가계 부채 상황은 시간 걸려

[미국 금융]

- WSJ: 크레딧 카드 이자율 더 높아
- WSJ: 대형 기술주 7종목 주도로 증시 상승

[뉴욕시]

- WSJ: 브루클린서 식료품 배달에 로봇 사용 실험

[오일]

- Bloomberg: 중동 전쟁 위기에 브렌트유 80불까지 상승

[자율주행차]

- Bloomberg: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아직 필요한 이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애플, 삼성과 경쟁할 '스마트 링' 2026년 출시 예상
- CNBC: 우버,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 전기차 서비스 확대
- CNNBusiness: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이 줄어든다
- Bloomberg: 배터리 제조업체 LG 에너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수익 감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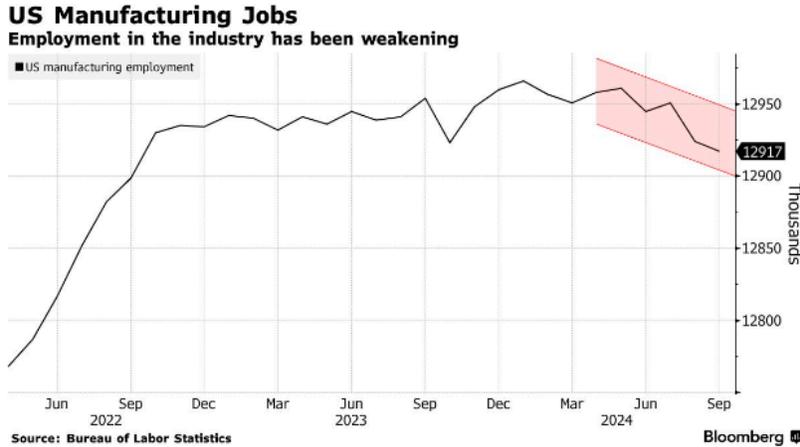
[미국 경제]

Bloomberg: Manufacturing Is Weak Spot in Surprisingly Strong US Jobs Data

9월 강한 일자리 보고서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

- 9월 미 일자리는 매우 양호했으나, 제조업 일자리는 7천개가 줄었다.
- 연방 노동통계청은 2개월에 걸쳐 3만4천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밝혔다.
-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지난 2년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자본 투자를 막는 약한 수요와 고금리, 그리고 자본 지출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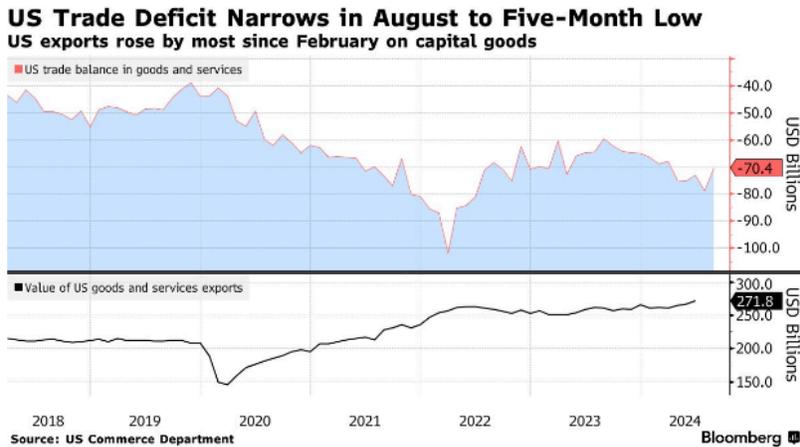
- 10월 일자리 보고서는 11월 1일 발표되는데, 보잉사 3만3천명의 직원들이 9월 들어 파업을 시작해 일자리가 추가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Goods, Services Trade Gap Narrows to Smallest in Five Months
8월 미 무역수지, 5개월 만에 가장 적어

- 8월 미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보다 커진 서비스 흑자와 상품 수출 상승에 따른 것이다.
-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 폭이 7월에서부터 10.8% 줄어든 7백4억불을 기록했다고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8월에 85억 달러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 수출 규모는 지난 2월 이래 가장 많은 2% 증가한 반면, 수입 규모는 0.9% 줄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Rate Cuts Need Time to Work Their Way Through the Economy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와 가계 부채 상황은 시간 걸려

- 연준이 9월에 0.5% 포인트라는 빅 컷을 시행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부채를 가진 기업체와 가구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금리 인하 효과가 느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직 불확실하다. 부동산 같은 경우 효과를 빨리 느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왜냐하면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뜨겁게도 하지 않고 둔화시키지도 않는 이른바 중립 금리는 현 금리인 4.75%~5%보다 더 훨씬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준의 금리는 경제 활동을 여전히 제약시키는 수준이다. 여기서 10월 4일 발표된 강한 일자리 보고서 때문에 연준의 향후 금리 폭 인하는 덜 공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립 금리는 약 3.75%~4%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가 돼야 자동차나 주택 구입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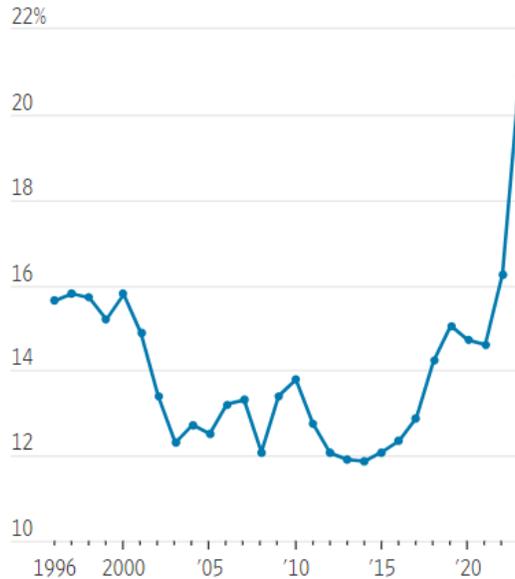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Carrying a Credit-Card Balance Has Gotten Way More Expensive 크레딧 카드 이자율 더 높아

- 은행들이 지난 수년 동안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높여왔다. 그리고 일부 은행들의 경우 크레딧 카드 연체 비용에 상한선을 두려는 정책이 다가오자 손실이 두려워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내려도 크레딧 카드 소유자들은 안도감을 갖기 힘들 수 있다.
- 올해 5월 크레딧 카드 평균 이자율은 21.5%로 연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 잔액은 2분기에 6천3백 달러로 지난 2021년 동기간에 비해 31% 오른 수준이라고 TransUnion 보고서는 밝혔다.
- 한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올해 초에 카드 연체료에 대한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8달러 상한선으로 설정했는데, 은행들은 이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미 이자율을 올렸다.

Credit-card interest rates have soared



Source: Federal Reserve

WSJ 기사

Bloomberg: 'Mag Seven' Rally as Nvidia's Winning Run Tops 13%: Markets Wrap

기술 대형주들 주도로 증시 상승세

- 투자자들이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랠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S&P 500은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루 거래일을 보낸 후 반등하고 있다. 나스닥 100은 1.2% 상승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엔비디아는 5일 연속 랠리를 하면서 13% 상승했다. 국채는 최근 매도세 후에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 국채의 경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연준 이사인 Adriana Kugler는 “고용 상승과 경제 확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둔화를 피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연준은 2% 인플레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WSJ: At a Brooklyn Warehouse, Robots Are Reshaping the Grocery-Delivery Business

브루클린서 식료품 배달에 로봇 사용 실험



- 이 실험은 Save A Lot이라는 식료품 체인 창고에서 시작되고 있다. 로봇 팔이 식료품 담긴 플라스틱 통을 지상에 있는 로봇들에게 전달하면 로봇들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근로자는 이를 식료품 가방에 담아 우버를 통해 배달한다. 이 기계는 6분에서 8분 만에 50개의 주문 품목을 만들 수 있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Brent Oil Surges to \$80 as War Risk Keeps Investors on Edge **중동 전쟁 위기에 브렌트유 80불까지 상승**

-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자,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8월 이후 최고가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도 3.7% 상승해 배럴당 77달러를 넘었다.
- 브렌트유는 지난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2023년 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내년 공급 및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로 3분기 가격이 하락하던 중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이란의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 브렌트유가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석유 옵션 시장은 선물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얻는 매수 콜 옵션이 강세다. 브렌트유의 변동성 지표는 거의 1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 자산 운용사들은 글로벌 벤치마크에 대한 순 매수 포지션(net-long position, 자산을 매수한 양이 매도한 양보다 많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Bloomberg 기사

[자율주행차]

Bloomberg: Self-Driving Cars? Why Your Next Ride Will Probably Need a Human Co-Pi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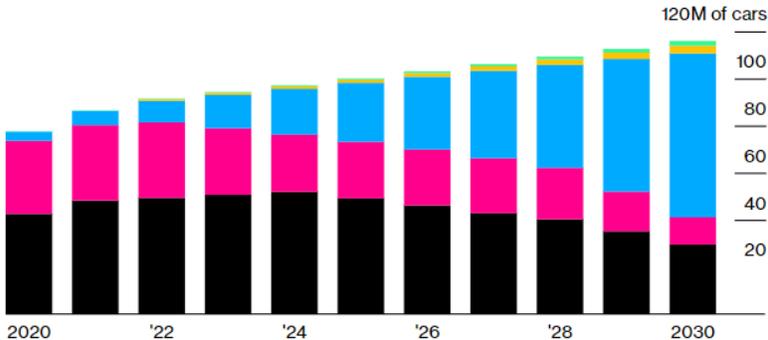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아직 필요한 이유

- 현재 자동차 업계는 운전 중 핸드프리(hands-free)와 충돌 방지 시스템 같은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모델에 적용 중이다. 이 기능은 운전을 더 안전하고 쉽게 만들어준다고 홍보됐지만, 일부 사망 사고로 이어진 충돌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규제 당국이 면밀히 조사 중이다.
-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는 카메라, 레이저, 센서를 사용해 운전자가 주차하고, 차선을 유지하고, 물체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주행 기능을 레벨 0에서 5까지 분류했을 때, 레벨 0은 차선 이탈 시 경고만 해줄 수 있는 정도이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이 독일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레벨 3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장소 모든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는 아직 멀었다.
- 아직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 도로교통안전국(U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2016년부터 ADAS와 관련된 충돌 사고를 조사한 결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운전자의 오용을 방지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는 2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소프트웨어 수정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역사상 가장 큰 리콜이었다.

Autonomous Shift

Driver-assistance systems will proliferate, though humans still needed

■ Level 0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Source: Accenture
Note: Level 0 to 4 describes rate of automation from zero to high. Full automation isn't forecast to be reached within the time span.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Apple could launch a ring to rival Samsung by 2026, research firm predicts

애플, 삼성과 경쟁할 '스마트 링' 2026년 출시 예상

- 애플이 2026년까지 삼성과 경쟁할 '스마트 링'을 출시할 수 있다고 CCS Insight가 밝혔다.
- CCS Insight 수석 분석가 Ben Wood는 “팀 쿡은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워치처럼 스마트 링에는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심박수 같은 건강 지표를 추적한다.
- 삼성은 올해 갤럭시 링을 출시했다. 애플 역시 스마트 링을 출시해 애플 제품 생태계에 고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반지는 사람마다 손가락 크기가 달라 소매점 입장에서 복잡할 수 있다. Wood는 애플이 크고 세련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반지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한 만큼, 디자인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애플의 브랜드 명성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CNBC: Uber gives users option to only hail full-electric cars, launches AI chatbot for EV-curious drivers

우버,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 전기차 서비스 확대

- 우버가 완전 전기차(fully electric vehicles)를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선호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전에는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혼합한 ‘우버 그린’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있다. 이제 우버는 전 세계 40개 이상 도시에서 배터리 전기차를 친환경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우버는 전기차를 공급해하는 운전자를 위해 AI 챗봇 ‘EV 멘토’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승차 호출 네트워크의 운전자들이 배터리 전기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비영리 국제 청정 교통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5%가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한다. 우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NBC 기사

CNNBusiness: Google’s search dominance is unwinding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이 줄어든다

-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고 있다. 광고 리서치 회사 eMarket에 따르면 내년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구글이 미국 검색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구글은 여전히 미국 검색 광고 매출의 48% 점유율을 유지하며 최대 검색 회사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아마존이 내년에는 미국 검색 광고 시장의 25%를, 2026년에는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구글은 반독점 규제 당국과도 싸우고 있다.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가 구글이 경쟁업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개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에도 연방 판사가 구글이 검색 분야를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Battery Maker LG Energy Profit Declines as Global EV Sales Slump 배터리 제조업체 LG 에너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수익 감소

- 글로벌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수익이 40% 가까이 하락했다. 화요일 발표된 예비 실적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영업이익은 4천483억 원(3억3천2백만 달러)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이에 따라 LG는 1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매출은 16.4% 감소한 6조9천억 원을 기록했다.

- LG 에너지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 감소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 공급업체에 생산 비용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 LG 에너지는 전기차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사업을 확대해 2028년까지 매출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골드만삭스, S&P 500지수 연말 전망 6,000p로 상향조정
경기침체 가능성은 15%로 낮춰...'정상시와 다르지 않아'**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정상시와 다를 바 없는 15%로 낮췄다.

7일(현지시간)마켓워치에 따르면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끄는 골드만삭스 분석팀은 S&P 500지수의 3개월 뒤 전망치를 6,000포인트로 잡았다. 이전의 5,600포인트에서 올린 것이다. 12개월 뒤 전망치는 6,000포인트에서 6,3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